

# 2003년 경기회복 전망되나 리스크 산재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소장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이 때쯤이면 누구나 신년계획을 세우느라 고민할 것이다.

우리 벤처기업인들도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내기는 그리 쉽지 않을 듯하다.

이에 이번 호 특집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발표한 2003년 경제지표를 골자로 그 기대치를 가늠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노력으로 세계경제가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라크사태가 전쟁이 발발하던 그렇지 않던 조기에 수습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지역도 12월초 유럽중앙은행이 정책이자율을 0.5% 인하함에 따라 그동안 경기 진작에 소극적이던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교역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IMF와 OECD는 세계교역량이 각각 2.1%에서 6.1%, 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교역량 증가는 국내기업의 수출호조로 이어질 전망이 우세하다.

## 수출은 호조, 경상수익은 축소

실물부분에서 2003년 경제는 수출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설비투자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미국경제 등 선진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른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와 최근의 對중국수출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달러금액기준으로 연간 8%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투자심리의 개선, 2001~2002년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부진했던데 대한 상대적 영

향 등으로 2003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8.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의 경우 작년에 이어 6%에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다소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원화 환율의 절상추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조금 높은 3.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는 2002년 추정치(약60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연간 1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3년 수입금액(국제수지기준)은 약 11% 증가될 전망이다.

올해 장기 및 단기 금리는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될수록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특히 장기금리는 실물시장과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상승하여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하반기에는 7%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간 평균 6.9%를 보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3년 중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져 연평균 1193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전년동기대비(%), 억달러(국제수지부문)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3.0	6.1	5.0	5.6	5.9	6.4	5.8
총소비	3.7	6.4	4.3	4.8	5.1	5.4	4.9
설비투자	-9.8	6.5	7.9	8.5	8.9	8.7	8.5
건설투자	5.8	1.5	-2.7	1.1	3.9	3.9	1.8
총수출	1.0	12.5	12.5	8.9	9.1	8.7	9.7
총수입	-2.8	15.8	14.6	10.5	10.3	9.6	11.2
생산자 물가	1.9	1.5	3.3	2.2	2.8	2.8	2.8
소비자 물가	4.1	2.7	3.4	2.8	3.2	3.4	3.2
경상수지	86.2	60.1	11.2	9.6	-6.7	-3.4	10.7
상품수지	133.9	147.7	32.7	38.4	20.9	24.6	116.7
수출	1513.7	1626.3	405.4	439.8	442.2	476.6	1764.0
수입	1379.8	1478.6	372.7	401.4	421.3	451.9	1647.3
원/달러환율 (평균)	1290.7	1249.6	1200.5	1193.9	1188.0	1191.0	1193.4
회사채수익률 (% , 평균)	7.0	6.6	6.2	6.7	7.2	7.6	6.9

▲ 2003년 국내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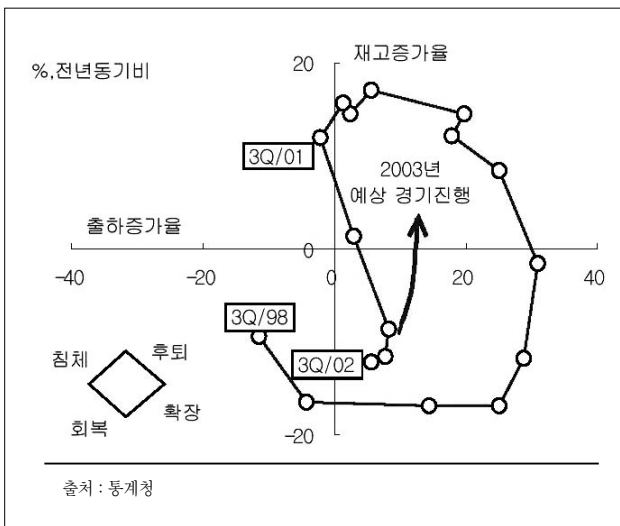
## 전쟁, 유가급등 등 위험변수 산재

2003년도 경기전망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변수(downside risk)가 존재한다.

첫째, 미국과 EU의 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사태, 테러확산, 북한핵문제 등 지정학적인 위험요인들이 악화된다면 세계경제회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그 한 예이다. 이에 따른 해외 경제 여건 악화는 내년 국내경기의 견인차인 수출증대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성장률이 4%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

둘째,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영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본 전망과는 달리 기업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동안의 투자부진을 장기화시켜 현재의 경기회복세 지속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2003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 적극적인 경제부양책 필요

신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법의 기본내용은 국내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의 규제와 여러 고용관행 등에 관한 특구입주 외국기업들에게 예외를 인정한다

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특혜사항을 보면 개발사업자에게는 인·허가와 관련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4개 법률에 대한 예외적용과 '법인세' 등 7개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 등 9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적인 법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각종 제약은 고용,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제약해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환경이 더 악화된다면 시장경제의 주축인 사기업의 입지를 현격히 축소시킬 것은 명백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개선된 징후가 없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인력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육성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중소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재정정책 활성화 위한 경제부처 재편 필요

정부는 거시경제조절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예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따라 아직까지 재정정책이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조절 역할이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근래 여러 선진경제들에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조절역할 제고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재정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경제부처 재편성이 필요하다. 경기불황시에 정부에서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팽창기조 전환을 여러 차례 천명했으나 연중 예산지출실적을 보면 조기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정부는 경제부처의 재편성을 통해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예산 편성, 집행기능과 거시경제정책 조절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 만약 부처 거대화가 우려된다면 지금 재경부가 관할하는 금융시장관련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예산체계의 문제는 단적으로 일단 편성된 후 예산집행의 속도와 지출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요 시 예산과 재정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여타 부처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집행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